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만족도 영향요인 및 정책시사점*

Factors Influencing Marriage Immigrant Women's Life Satisfaction in Jeon-nam Area

김 상 민** · 이 소 영***

Kim, Sangmin · Lee, So Young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분석틀 및 연구방법
- IV.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V. 논의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실증하고, 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내부적 요인은 인구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그리고 외부적 요인은 정책적 요인 및 지역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9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요인 중에서도 가족적 요인 및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과제(전라남도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이혼을 저감 방안)의 일부를 발전시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 주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공동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17. 8. 22, 심사기간: 2017. 8. 22~2017. 9. 22, 게재확정일: 2017. 9. 22

특히 지역사회의 다문화이해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결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가 주로 개인 및 가족의 심리적·사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되어 공공정책의 개입에 있어 상당한 한계점을 가졌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실증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식의 전환과 지역사회 차원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주제어: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삶의 만족도, 다중회귀분석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family, especially marriage immigrant women's life satisfaction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related literature and creates a research framework, which is composed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internal factor includes socio-demographic, family, social factors, whereas the external factor includes institutional and local environmental factors. Then, a survey was employed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in Jeon-nam area, and a total of 494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used to conduct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family and local environmental factors have relatively larger influences to marriage immigrant women's life satisfaction. In particular, the understanding and openness of local community member to multicultural family and society is proved to have the largest effect. This result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current studies which usually focus on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psychological and private dimension at the individual and family level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significance of the local environmental factor, the study argues that multicultural policy should further focus on the role of local society, considering how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nd openness of local community members to multicultural family and multicultural society.

□ Keywords: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immigrant women, life satisfactio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I. 서론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사회적인 이슈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차별,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양인숙 외, 2010). 특히 최근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혼·별거 혹은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의 증가가 주목할 만한 변화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까지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했던 시점에 결혼한 결혼이민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이선 외, 2016). 전라남도의 경우, 도내 혼인 가구 중에서 다문화 비중은 2013년(10.7%), 2014년(8.7%), 2015년(8.1%)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도내 이혼 가구 중에서 다문화 비중 역시 2013년(12.1%), 2014년(12.9%), 2015년(11.5%)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16.11.). 그러나 다문화 가구의 이혼율은 혼인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율 감소폭에 비해 다문화 가구 이혼율의 감소폭은 상당히 작아,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족 해체의 문제는 당사자 개인에게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야기시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발생을 발생시키거나 국가 간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어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족간 갈등 및 해체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안정화,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편안함, 만족감 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남 다문화가족의 갈등과 해체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의 문제는 다문화사회로의 순항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minority)로서 심리적 만족감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제도적 지원의 효과 또는 지역환경적 특성에 대한 논의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검토하여 통합적 분석틀을 설정하고,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 영향요인을 실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를 인구현상적 차원에서 정의하면 한 사회 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인종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Kymlicka(1995)는 다문화사회를 다민족(multinational)이나 다인종(polythnique)으로 구분하면서, 다민족사회는 기존에 존재 하던 여러 다양한 문화적 실체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 국가의 주류를 이끌어가는 다수집단과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소수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성되는 반면, 다인종 사회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기존의 인종과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다문화사회라는 용어의 개념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김혜순, 2007: 15). 특히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를 지칭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 개념은 다문화사회를 단순한 현상에서 벗어나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적이나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좁게는 문화적 향유권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차별 요소를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박진경, 2010: 267).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들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목표지향적 가치는 다문화주의라는 개념과 직결된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주로 국민통합이나 사회통합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온 개념으로, 역사적으로 서구 국가들에 의해 인종정책으로 채택되었던 동화주의나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업화 및 후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가치체계가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 가치로 변화하면서, 사회의 소수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서 다문화주의가 발전하였다. 다문화주의 이론의 대가인 Taylor(1992)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정의하면서, 인정의 정치는 단지 소수집단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문화가 존속하도록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윤인진, 2008). Toper(1999)의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는 ①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이자, ②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이며, ③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형평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 내부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정비하는 개념으로 인식가능하다(구건서, 2003: 30). 즉 다문화주의란 사회통합적 관점에 의한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합의된 실천이념이며(박진경, 2010: 262), 이를 기반으로 전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사전적으로 만족(satisfaction)이란 ‘마음에 흡족함’이라는 뜻이지만,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고 있어 정확하게 일치된 개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 Campbell(1965)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라고 정의하는 반면, Neugarten(1968)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면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효율적으로 주위환경에 잘 대응해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조완규(1993)는 삶의 만족도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며,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매일의 생활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 또는 감정을 느끼고 유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이해숙(1994)은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의미로써 자신이 기대하던 인생과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과의 합일정도로 정의한다. 즉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Diener et al. 1985), 개인은 삶의 여러 측면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의거해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삶의 만족도를 인식한다는 것이다(Shin and Johnson, 1978). 이러한 주관성은 개인의 경험이나 기대 등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과 판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삶의 만족도는 심리학, 철학, 생물학, 그리고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접근해 왔다. 심리학은 개인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철학은 도덕적 맥락에, 생물학은 유전적 혹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하였고,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social conditions)에 관심을 가져왔다(김한성·이유신, 2013:

180). 무엇보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개개인의 심리적 만족감과 사회적 적응상태 등을 포괄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 어느 구성원에게나 중요한 개념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및 다문화가족의 수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단계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정착단계로 들어섰다고 보고된다(한승준, 2008; 이종열 외, 2013).¹⁾ 무엇보다 다문화사회 진입단계와 전환단계에서 이주민들의 우리 사회로의 정착과 내국인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가는 엄청난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 비용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심에 있는 그룹이 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이 형성한 다문화가정이며,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문화가정의 안정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이들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나아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우리사회의 다문화 이해도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정착에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개인 심리적 특성에서부터 사회 연결망 및 네트워크 특성, 사회참여 활동, 가족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 법적 제도적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환경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요인을 정리해보면 크게 인구사회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그리고 지역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적 요인은 결혼이주자의 삶의 만족도가 연령, 거주기간, 출신국가,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었고(김경미, 2012; 김진희·박옥임, 2008; 양순미, 2010),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연수, 2007; 김경미, 2012).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결혼기간에 있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교육수준이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경미, 2012; 김진희·박옥임, 2008)와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1) 한승준(2008)에 따르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는 크게 1단계(진입단계), 2단계(전환단계), 3단계(정착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등록인구의 비율이 1~2%로 높아지고, 국제결혼의 비율이 1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단계로 분류가능하다.

않는다는 연구(박은희·조인주 2012)도 있다. 결혼기간에 있어서도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김진희·박옥임, 2008)와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정주연, 2008; 박은희·조인주, 2012)도 있다. 이영분·이유경(2009)의 연구는 결혼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며 10년 후에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다. 대표적으로 양순미(2006)는 출신국가에 따라 결혼생활 적응도가 다름을 확인하고, 출신국에 따라 다른 결혼동기가 이들의 결혼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경미(2012)의 연구에서도 출신국에 따라 사회적응 정도와 생활만족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별 한국어 수준도 결혼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진희·박옥임(2008)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즉 한국어 구사정도에 따른 의사소통 효율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는 배우자 및 가족과의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가족적인 요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바로 배우자와 시부모 등의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과의 갈등유무, 만족도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박지선 외(2015)의 연구에서는 부부간 갈등이나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게 김경미(2012)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가족모임이나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사회적 요인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을 들 수 있다. 개개인은 친목모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이주자의 정신건강, 사회적응 및 수용사회에서의 성공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이민아, 2010; 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장지혜·설동훈(2006)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연결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빈도가 높거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될수록 사회적 연결망이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우지혜(2014)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넷째는 정책적인 요인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공식적 장치로서, 공공적 지원의 배경으로

작동되는 중요한 기제라는 인식이 있다(Ryde, Alden & Paulhus, 2000; Castle & Miller, 2009; 우양호·안미정, 2016). 세부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근거로 행해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및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가족교육,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취업알선, 그리고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이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한나·윤기찬, 2010; 장진경·신유경, 2012; 우양호·안미정, 2016). 비슷하게 김익준(2014)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이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환경적 요인이다. 지역사회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사회단위이며,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라는 ‘환경 속의 인간(person-in environment)’으로 볼 수 있다(우양호·안미정, 2016). 따라서 지역환경적 특성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방성,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이웃처럼 생각하는 지역 주민의 개방적 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 및 감성적 교류가 다문화 가족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장진경·신유경, 2012; 홍성희, 2012; 우양호·안미정, 2016).

한편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나 개방성은 반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개방성이 낮은 지역사회일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이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afi(2010)의 경우 European Social Survey(Ess)를 활용하여 이주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주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이 사회적 차별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고 있다(김한성·이유신, 2013).

〈표 1〉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원	주요 요인	주요 내용	분석 내용	선행연구
내부적 차원	인구 사회적 요인	개인적 특성	출신국가	출신국가에 따라 결혼생활 적응 및 생활 만족도가 다름(양순미, 2006; 김경미, 2012) 출신국가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양순미, 2015)
			연령	연령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김연수, 2007; 김경미, 2012)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는 유의(김경미, 2012; 김진희·박옥임, 2008)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음(박은희·조인주 2012)
			거주기간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김진희·박옥임, 2008) 결혼기간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음(정주연, 2008; 박은희·조인주, 2012)
			한국어 구사 정도	한국어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김진희·박옥임, 2008)
			가구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음(김경미, 2012; 김진희·박옥임, 2008; 양순미, 2010)
	가족적 요인	가족 내 갈등 및 만족도	부부간 갈등 및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부부간 갈등 및 배우자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박지선 외, 2015)
			한국인 가족과의 친밀도	한국인 가족간의 정서적 친밀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김경미, 2012)
	사회적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및 교류	사회적 관계망 (모임·활동 참여 정도)	사회적 연결망은 지역사회 적응 및 성공에 깊은 연관(이민아, 2010; 장지혜·설동훈, 2006; 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사회참여 지지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가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우지혜, 2014)
외부적 차원	제도적 요인	법적·제도적 지원 정책·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프로그램 만족도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장하나·윤기찬, 2010; 장진경·신유경, 2012; 김익준, 2014; 우양호·안미정, 2016)
	지역 환경 요인	지역문화의 특성 지역주민의 태도	지역주민의 개방적 태도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정도	지역주민의 개방적 태도와 다문화 이해도는 다문화가족 적응에 긍정적 영향(장진경·신유경, 2012; 홍성희, 2012; 우양호·안미정, 2016)
			지역사회 내 차별정도	사회적 차별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4. 전남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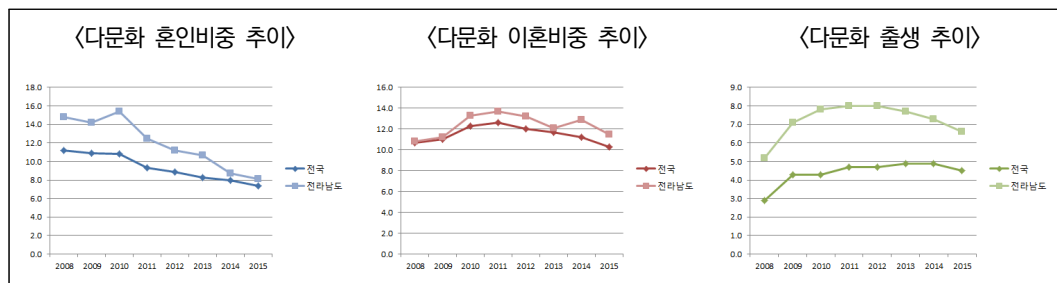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 혼인은 전체 302,828건 중 22,462건으로 7.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4년의 다문화 혼인 비중 8%에 비해 약 0.6%감소한 수치이며, 전체 혼인 건수 대비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다문화 혼인은 2015년 기준 전체 혼인 건수 9,359건 중 755건으로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다문화 혼인 비중 역시 2010년 15.4%에서 2011년 12.5, 2013년 10.7, 그리고 2015년 8.1%로 2010년 이후 전국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의 다문화 이혼은 2015년 전체 109,153건 중 11,287건으로 약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이혼 비중 역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전남의 경우 2015년 전체 이혼건수 4,067건 중 다문화 이혼은 469건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지속적 이혼율 감소추세와 달리, 전남지역의 다문화 이혼율은 2014년 급격히 증가다가 2015년 다시 감소하는 등 혼인을 감소폭에 비해 이혼율의 감소폭은 크지 않아, 다문화가족 해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다문화 출생아 수의 경우, 전국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남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 들어서면서 감소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2〉 전국 및 전남의 다문화 혼인 및 이혼 추이

항목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혼인	전국	326,104	35,098	10.8	329,087	30,695	9.3	327,073	29,224	8.9	322,807	26,948	8.3	305,507	24,387	8	302,828	22,462	7.4
	전라남도	10,573	1,625	15.4	10,348	1,291	12.5	9,888	1,105	11.2	10,069	1,077	10.7	9,442	822	8.7	9,359	755	8.1
이혼	전국	116,858	14,319	12.3	114,284	14,450	12.6	114,316	13,701	12	115,292	13,482	11.7	115,510	12,902	11.2	109,153	11,287	10.3
	전라남도	4,372	580	13.3	4,179	573	13.7	4,050	536	13.2	4,135	501	12.1	4,167	536	12.9	4,067	469	11.5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1〉 전국 및 전남의 다문화 특성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3〉 전국 및 전남의 다문화 출생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체	다문화	%
전국	470,171	20,312	4.3	471,265	22,014	4.7	484,550	22,908	4.7	436,455	21,290	4.9	435,435	21,174	4.9	438,420	19,729	4.5
전남	16,654	1,303	7.8	16,612	1,332	8	16,989	1,363	8	15,401	1,193	7.7	14,817	1,083	7.3	15,061	1,001	6.6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2015년 전국의 경우 중국(중화인민공화국)출신이 전체 49.3%를 차지하고 있어 거의 과반의 결혼이주여성이 중국계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25.8%), 필리핀(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베트남 출신이 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계(38.6%), 필리핀(9.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베트남출신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가

외국인 아내의 국적 (2015년)	전국	비율	전라남도	비율
계	5,743		311	
필리핀	366	6.4%	29	9.3%
베트남	1,480	25.8%	126	40.5%
캄보디아	137	2.4%	6	1.9%
태국(타이)	101	1.8%	-	-
몽골	97	1.7%	7	2.3%
중국(중화인민공화국)	2,830	49.3%	120	38.6%
일본	235	4.1%	10	3.2%

외국인 아내의 국적 (2015년)	전국	비율	전라남도	비율
우즈베키스탄공화국	102	1.8%	-	-
미국(미합중국)	107	1.9%	-	-
러시아	46	0.8%	-	-
기타 및 국가명 미상	242	4.2%	7	2.3%

즉 전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문화 혼인율이 전국에 비해 약 0.7%, 다문화 이혼율이 전국에 비해 약 1.2%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 출생아 수의 경우도 전국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2.1%)를 보이고 있어 전남지역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남 다문화관련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²⁾, 전남지역의 가족해체 문제에 대한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다문화가족 해체저감 및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해체 및 이혼율의 문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화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안정과 편안함, 만족감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남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를 고민하는데 있어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의 문제는 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전국에 비해 베트남 및 필리핀, 즉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남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출신국가의 영향력 검증도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분석틀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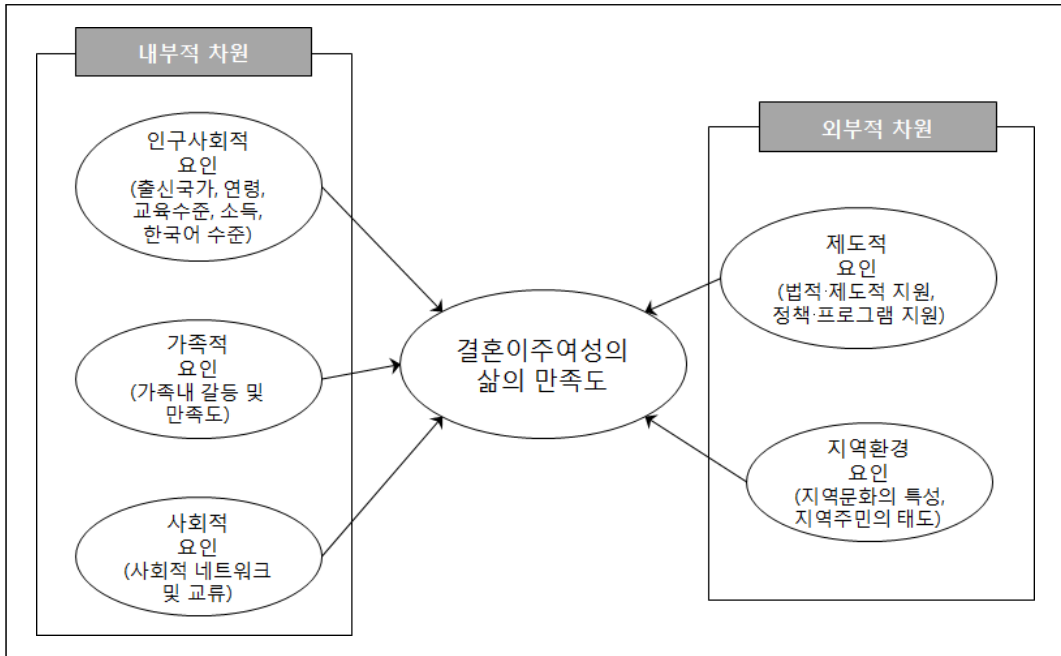
1. 연구분석틀

지금까지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전남의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특성을 전국과 비교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크게 내부적 차원과 외부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내부적 차원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가족 내부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외부적 차원은 제도적 요인과 지역환경 요인으로 구성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연령, 출신국가, 한국어

2) 전남 관계자 인터뷰(2017년 4월 21일)

구사정도를, 경제적 요인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배우자 만족도, 그리고 한국인 가족(시부모 및 형제자매)과의 갈등, 한국인 가족 만족도 등을,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모임 및 활동에의 참여 정도 및 사회참여 지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적 차원으로서 제도적 요인은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프로그램 만족도를, 그리고 지역환경 요인으로서 지역사회의 다문화 이해 정도, 지역사회 내에서 경험하는 차별 정도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림 2〉 연구 분석 틀



2. 자료수집 및 절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 기초조사,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사회생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경제활동, 지역사회 분위기 및 생활만족도 등의 총 6개 유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설문지는 전라남도 2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를 통해 센터를 방문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배포되었다. 설문응답자는 국적 미취득 여성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포함하는 기혼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에게 본 설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미리 설명을

하였고, 설문지 응답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과 결혼이주여성이 1:1로 동석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전체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체 회수된 설문지는 19개 시·군에서 총 494부이다.

3. 측정지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귀하는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매우 불만족(0)’부터 ‘매우 만족(10)’까지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는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크게 내부적 차원과 내부적 차원으로 나누고, 내부적 차원은 인구사회적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은 출신국가, 연령, 소득, 한국어 구사정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신국가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들을 크게 동남아시아, 중국, 중국(한국계, 조선족), 일본,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 및 미주로 구성하고 더미변수화 하였다. 연령은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소득지표는 지난 1년동안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묻는 문항으로서,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어 구사정도는 스스로 인지하는 한국어 실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①전혀못한다 ~ ⑤매우잘한다의 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가족적요인은 가족 내 갈등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문항, 시부모님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갈등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문항(①전혀 갈등없음~⑩갈등 매우 심각), 그리고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⑩매우 불만족~①매우 만족)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요인은 지난 1년간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빈도(①전혀없음~⑤10회 이상)를 5점 척도로 측정하는 문항과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①심하게 반대~⑤적극적으로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외부적 차원은 정책적 요인과 지역환경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정책적요인은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서비스 만족도를 측정(①매우 불만족~⑩매우 만족)하는 단일문항으로, 지역환경 요인은 거리나 동네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을 4점 척도(①전혀차별을 받지 않았음~④심한 차별을 받았음)로 측정하는 문항과 지역 주민들이 다문화 가족에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①전혀 이해하지 못함~⑩매우 잘 이해함)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측정 지표

구분		설명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⑩매우 만족	
독립변수	인구사회적 요인	연령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한국어 수준	①전혀못한다 ~ ⑤매우잘한다
	가족적 요인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	①전혀대화하지 않음 ~ ⑤2시간 이상
		시부모와의 갈등 정도	①전혀 갈등없음 ~ ⑩갈등 매우 심각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갈등 정도	①전혀 갈등없음 ~ ⑩갈등 매우 심각
		배우자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 ~ ⑩매우 만족
	사회적 요인	한국인 가족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⑩매우 만족
		지난 1년간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 빈도	①전혀없음~⑤10회 이상
	정책적 요인	사회활동에 대한 지지정도	①심하게 반대~⑤적극적으로 지원
		다문화가족 교육 및 지원서비스 만족도	①매우 불만족~⑩매우 만족
	지역환경 요인	거리나 동네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	①전혀차별을 받지 않았음~④심한 차별을 받았음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가족 이해 정도		①전혀 이해하지 못함~⑩매우 잘 이해함	
통제변수	인구사회적 요인	출신국가	동남아시아, 중국, 중국(한국계, 조선족), 일본,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유럽 및 미주

IV.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70% 이상은 40세 미만이며, 이들 중 30~39세가 3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9세 이하는 34.4%, 40~49세는 17.8%를 차지하였고, 50~59세는 3.4%, 60세 이상은 0.2%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출신국적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경우가 전체 6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주해온 경우가 15.4%(한국계 포함), 일본 국적이 8.1%,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출신이 약 5.9%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에 있어 조사 참여자의 약 58.3%가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생계급여수급자³⁾ 기준에도 못 미치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지닌 경우도 2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가구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467,380원)에 가까운 4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구사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정도로 응답한 여성이 218명,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약간 잘하거나 매우 잘한다는 여성이 전체 37%, 반면 전혀 못하거나 별로 못한다고 인식하는 여성이 전체 약 15% 정도에 그치고 있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약 85% 이상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보통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표 6〉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N = 494)

구분		빈도	비율
연령	29세 이하	170	34.4
	30~39세	188	38.1
	40~49세	88	17.8
	50~59세	17	3.4
	60세 이상	1	0.2
출신국적	동남아시아	334	67.6
	중국	62	12.6
	중국(한국계, 조선족)	14	2.8
	일본	40	8.1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29	5.9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126	25.5
	100~200만 원 미만	162	32.8
	200~300만 원 미만	93	18.8
	300~400만 원 미만	52	10.5
	400~500만 원 미만	23	4.7
	500만 원 이상	19	3.8
한국어 구사 정도	전혀 못함	7	1.4
	별로 못함	69	14.0
	보통	218	44.1
	약간 잘함	127	25.7
	매우 잘함	59	11.9

3) 2017년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1,340,214원, 중위소득은 4,467,380원이다(보건복지부).

2.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는 배우자 만족도(0.508)와 한국인 가족 만족도(0.51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 이해정도(0.483), 사회참여지지(0.377), 부부간 대화시간(0.361)의 순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부모와의 갈등(-0.381), 배우자 형제 및 자매와의 갈등(-0.284), 거리 및 동네에서의 차별 경험(-0.279) 등의 요인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5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삶의 만족도	연령	한국어	소득	동남 아시아	중국	일본	중앙 아시아	시부모 갈등	형제자매 갈등	부부간 대화	배우자 만족도	한국인 가족 만족도	모국인 친구모임	사회참여 지지	자원 서비스 만족도	거리 동네 차별	다문화 이해	
(1)	1.000																	
(2)	-.016	1.000																
(3)	.136***	.233***	1.000															
(4)	.042	.155***	.188***	1.000***														
(5)	.075*	-.427***	-.278***	-.241***	1.000													
(6)	.046	.129**	.249***	.101**	-.252***	1.000												
(7)	-.150***	.331***	.114***	.110**	-.442***	-.052	1.000											
(8)	-.120**	.005*	.015***	.040	-.383***	-.045	-.079*	1.000										
(9)	-.381***	.049	-.085*	-.087*	-.021	-.075*	.143***	.029	1.000									
(10)	-.284***	.103**	.025	-.037	-.057	-.031	.099**	.049	.706***	1.000								
(11)	.361***	-.075*	-.032	.110**	.027	-.002	-.087*	-.024	-.283***	-.224***	1.000							
(12)	.508***	.023	.010	.045	-.029	.044	.026	-.007	-.317***	-.288***	.485***	1.000						
(13)	.515***	-.063	.020	.048	.073	-.030	-.043	-.072	-.504***	-.474***	.367***	.691***	1.000					
(14)	-.001	-.002	.087*	.008	.032	-.045	.153***	-.012	-.001	-.064	.060	.113**	.076*	1.000				
(15)	.377***	.054	.142***	.152***	-.045	.088*	-.034	-.057	-.184***	-.216***	.328***	.349***	.309***	.168***	1.000			
(16)	.336***	-.053	.094**	-.070	.081*	.018	-.058	-.121**	-.119**	-.019	.079*	.208***	.178***	.058	.148***	1.000		
(17)	-.279***	-.056	-.065	-.096**	.161***	-.138***	.010	-.102**	.174***	.162***	-.224***	-.253***	-.187***	-.075*	-.203***	-.073*	1.000	
(18)	.483***	.003	.115**	-.029	.061	-.004	-.156***	-.056	-.075*	.013	.053	.163***	.200***	.024	.134***	.349***	-.147***	1.000

3.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지역환경적 요인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각 모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을 검토할 수 있는 Du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인구사회적 변인 모델(모델 1, 1.486)에서 모든 변수를 고려한 모델 5(1.990)로 갈수록 2에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 사회, 정책적 요소와 지역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모델 5가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이 없는 독립이라는 회귀모델의 기본가정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적합도(R-saure)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간 비교는 특정 변수를 첨가하거나 제거했을 때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모델 5를 기타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영향관계의 부호는 대부분 동일했으며, 영향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정도도 모델 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3개의 변수, 즉 연령, 출신국가, 소득수준, 출신국가 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Adj R-Sq)는 2.7%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인구 및 사회적 요인의 차이가 삶의 만족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추정할 수 있다. 비록 모형의 적합성은 낮았으나 이주자의 한국어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신국가 변인에서는 참조집단인 중국(한국계)에 비해 일본과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인구사회적 요인에 가족적 요인을 추가한 모델로, 시부모갈등, 형제자매갈등, 부부간 대화시간, 배우자 만족도, 한국인가족 만족도 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31%로 나타나 인구사회적 요인에 비해 훨씬 설명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사회적 요인 중 한국어 수준은 여전히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중국(한국계)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중국(한국계) 출신에 비해 낮은(부호: 마이너스)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1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신국가 중 중앙아시아 변인이 가족적 요인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족적 요인 중에서는 시부모 갈등, 배우자 만족도, 한국인가족 만족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및 한국인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3은 인구사회적요인, 가족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모국인 친구모임의 참석 빈도, 사회참여에 대한 지지요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34%로 나타나 인구사회적요인 및 가족적 요인을 고려한 모델 2에 비해 조금(3%) 높아졌다.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4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 가족적요인, 사회적 요인에 추가적으로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였고, 정책요인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변수를 이용하였다. 모델의 설명력은 약 38%로 모델3에 비해 4%정도 증가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적 요인중 소득 변수와 일본출신 변수, 가족적 요인의 시부모 갈등과 배우자 및 한국인 만족도 변수, 그리고 사회적 변수 중 사회참여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책적 요인인 지원서비스 만족도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인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즉 인구사회적 요인, 가족적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및 지역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모델 5)는 기존 모델들과 전반적으로 일관된 통계값을 보여준다. 5가지 주요 변수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정도는 52%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모델 4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환경 차이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차이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각 요인별 영향을 살펴보면 인구사회적 요인 중에서 한국어 수준은 기존 모델 결과와 부합하여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적 요인 중에서는 시부모갈등 및 부부간 대화시간, 배우자 및 한국인가족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전국에 비해 베트남 및 필리핀 출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출신국가의 영향력도 중요한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는데, 분석결과 출신국가 차이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 중 모국인 친구와의 모임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이민아(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경기도 81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본국출신 동료와의 연결망은 결혼이주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결망이 전혀 없는 여성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연결망은 이민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며, 특히 가족이나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 하에 있는 본국 출신 동료 이민자(Co-ethnic members)는 이주자들의 이민결정, 이주과정, 그리고 이주 후 적응과정과 삶의 질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Portes et al., 1992; Kandel and Massey, 2002; 이민아, 2010). 그러나 본국 출신 동료 이민자와의 강한 연계는 이민자 공동체 내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를 증가시켜 이민자들의 활동과 표현을 제한하거나(Portes and Sensenbrenner, 1993)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erlander, 2007). 즉 모국 출신 친구들 모임에의 참석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좁은 연결망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심리적인 안정감 및 삶의 만족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환경 요인인 거리동네에서의 차별 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주민의 다문화 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상대적 영향력의 경우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326$), 그 뒤로 배우자 만족도($\beta=0.200$), 사회참여지지($\beta=0.137$)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8〉 전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중회귀분석 결과)

요인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B(β)	t	B(β)	t	B(β)	t	B(β)	t	B(β)	t
인구 사회적	연령	0.017(-0.008)	0.139	.016(.007)	.146	-0.005(-0.002)	-0.043	0.038(0.017)	0.339	0.021(0.009)	0.199
	한국어	0.305(90.147)	2.785 ***	.233(.111)	2.337 **	0.222(0.105)	2.162 **	0.168(0.079)	1.656 *	0.168(0.078)	1.782 *
	소득	0.014(0.010)	0.200	-.030(-.021)	-.461	-0.051(-0.036)	-0.778	-0.020(-0.014)	-0.305	-0.007(-0.005)	-0.128
	출신 동남아시아	-0.225(-0.055)	-0.803	-.034(-.008)	-.134	-0.008(-0.002)	-0.029	0.009(0.002)	0.034	0.140(0.034)	0.583
	출신 중국	-0.134(-0.011)	-0.216	-.125(-.011)	-.227	-0.232(-0.020)	-0.409	-0.199(-0.017)	-0.359	-0.175(-0.016)	-0.355
	출신 일본	-1.070(-0.157)	-2.704 ***	-.960(-.139)	-2.634 ***	-0.871(-0.123)	-2.235 **	-0.803(-0.113)	-2.112 **	-0.343(-0.050)	-0.991
출신 중앙아시아	-0.897(-0.111)	-1.998 **	-.637(-.082)	-1.605	-0.606(-0.081)	-1.521	-0.471(-0.061)	-1.191	-0.533(-0.069)	-1.459	
가족적	시부모갈등			-.084(-.127)	-1.955 *	-0.088(-0.133)	-2.001 **	-0.073(-0.110)	-1.686 *	-0.087(-0.130)	-2.163 **
	형제자매갈등			.008(.012)	.195	-0.001(-0.001)	-0.017	-0.018(-0.027)	-0.422	-0.007(-0.010)	-0.170
	부부간대화			.126(.074)	1.484	0.096(0.058)	1.116	0.106(0.064)	1.260	0.149(0.089)	1.875 *
	배우자만족도			.237(.288)	4.847 ***	0.180(0.221)	3.520 ***	0.150(0.184)	2.981 ***	0.167(0.200)	3.280 ***
	한국인 가족 만족도			.157(.199)	3.194 ***	0.162(0.206)	3.198 ***	0.152(0.192)	3.047 ***	0.103(0.128)	2.045 **
사회적	모국인 친구모임					-0.093(-0.068)	-1.480	-0.099(-0.072)	-1.606	-0.114(-0.084)	-2.020 **
	사회참여 지지					0.296(0.164)	3.313 ***	0.272(0.150)	3.100 ***	0.249(0.137)	3.041 ***
정책적	지원서비스 만족도							0.213(0.213)	4.702 ***	0.091(0.092)	2.115 **
지역환경	거리동네 차별									-0.198(-0.093)	-2.186 **
	다문화 이해									0.298(0.326)	7.381 ***
Intercept		6.393	12.104 ***	3.915	6.307 ***	3.740	5.699 ***	2.344	3.321 ***	1.865	2.610 ***
F-value			2.700 ***		14.857 ***		13.527 ***		14.659 ***		20.680 ***
Adj R-Sq			0.027		.312		0.341		0.379		0.520
D-W 계수			1.486		1.871		1.908		1.919		1.990

* 유의수준: * <0.1, ** <0.05, *** <0.01

** 출신국가 참조집단: 중국인(한국계)

*** 가족적 요인 중 형제자매 갈등변수의 경우 모델 2와 나머지 모델 3,4,5의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형제자매갈등이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매개하면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모델 2,3,4,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음

V. 논의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내부적-인구사회적, 가족적, 사회적, 외부적-정책적, 지역환경적)을 도출하고, 전라남도에서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총 494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적 요인과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이해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환경적 요인 중 지역사회내 차별경험도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정도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식변화 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적응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실증한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갈등 및 가정해체 위기상황 등의 문제점은 다문화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온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가족 내부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하게 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다민족·다인종 사회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역사회의 공동체(local community)가 함께 다문화가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협조와 노력 없이는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되기 어려우며(Dworkin & Dworkin, 1999; Ryde, Alden & Paulhus, 2000),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지역사회 중심형',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박세훈, 2009, 2010; 이소영, 2013). 즉 다문화가족의 해체 저감 및 안정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얼마나 적응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조화 및 통합될 수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중심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내부적 요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중에서 한국어 구사정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읽고 쓰고 말하는 정도를 포괄하는 한국어 구사능력은 가족 뿐 아니라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국어 구사능력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출신국가별 차이 요인, 즉 출신국가가 결혼이주여

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출신국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선행 연구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양순미, 2015), 이는 출신국가 변수에 비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도 출신국가의 변수가 모델 1에서는 유의미 하였지만 모델 5에서는 그 유의성이 소멸하였으며, 이는 출신국가 변수가 다른 요인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족적 요인 중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배우자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을 가진다는 것은 비단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결혼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이민아, 2010: 35). 특히나 결혼이주여성은 일반 사회구성원에 비해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족에 중점을 둔 제한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 등의 배우자가족과의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배우자 및 한국인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특히 시부모와의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모임 또는 취미나 사교모임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빈도가 높거나 사회참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우지혜, 2014)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감과 적응,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적 요인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정당성 및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증진,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내 갈등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의 지속화 및 다각화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적 요인, 즉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였으며,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갈등이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배우자 및 한국인 가족과의 갈등해소 및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갈등에 대한 이슈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정책 개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문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7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서는 6대 영역 799개 과제를 수립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이혼 및 갈등을 직접적 타겟으로 설정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부재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부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가족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기는 하나, 실제 결혼이주여성은 현실적인 제약요건 등으로 인해 센터이용에 있어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전라남도의 2017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의하면 2013년부터 추진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전문상담사 지원프로그램이 2017년을 끝으로 종료 예정되어, 다문화가족 내 갈등 및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갈등완화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대화교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결혼이주여성 전문상담사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전문상담사 등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여 다문화가족의 갈등을 완화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이 시급하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다문화주의란 사회통합적 관점에 의한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구성원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실천이념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 및 순응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사회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동화주의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되어 왔다(박진경, 2010: 262). 따라서 현재의 일방적 동화주의에 기초한 사회통합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openness)과 관용(tolerance)을 갖추고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성(friendship)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우양호·안미정, 2016: 55). 특히나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과 지원의 대상이 다문화 가족에게 한정되기 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의 긍정성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방향(two-way)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공간 거점의 형성이나 다문화 공동체 만들기 등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이나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 다문화지원센터 또는 다문화지원본부 등의 제도적 기관이 다문화관련 행정 지원기관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거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음성군 금왕읍 다문화지원센터의 경우 '이음'이라는 카페를 시설 내에 설치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확대 뿐만 아니라 카페 공간을 중심으로 함께 교류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페 이음의 활성화는 카페를 이용하는 일반 지역주민들의 증가로 이어져, 결혼이주여성 등의 외국인끼리의 소통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라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 다양한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거점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다문화

친화형 공간은 결혼이주여성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정착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설이나 상가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될 수 있게 하거나, 다문화거리와 같은 지역 공간 거점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내 다문화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일반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가 주로 개인 및 가족의 심리적·사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되어 공공정책의 개입에 있어 상당한 한계점을 가졌던데 반해, 지역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함께 실증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식의 전환과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 및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이 필수적인데 반해 본 연구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전남지역 결혼이주여성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이해함이 더 적절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시계열적 접근, 그리고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건서. (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체계, 「현상과 인식」, 90: 29-52.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김이선·김영란·이해응. (2016).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익준. (2014).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김한성·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김혜순 외.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 문수경 외. (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 및 영향요인. 「가족과 문화」, 27(3): 250-271.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 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_____.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
- _____. (2015).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2(1): 55-67.
- 양인숙 외. (2010).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V):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양호·안미정. (2016).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그 영향요인. 「지방행정연구」, 30(2): 31-61.
- 우지혜.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평등,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우울도와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 이영분·이유경.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26(8): 63-86.
- 박세훈 외.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I)-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_____. (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II)-지역중심형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 박지선·정영조·류한수. (2015).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배우자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민족연구」, 61: 168-189.
- 박진경. (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259-289.
- 박은희·조인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29-54.
- 이소영. (2013).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혜숙. (1994). 가정환경요인과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지혜·설동훈.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2006년 한국 사회학대회 자료집」, 85-86.
- 장진경·신유경. (2012). 다문화 부부간 개인적 특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발표논문집」, 360-365.
- 장하나·윤기찬. (2010).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행정연구」, 24(2): 121-155.
- 정유리. (2014).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4(1): 55-82.
- 홍성희. (2012).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과 갈등 대처전략.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49-175.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and Willard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NY: Russell Sage.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in the Modern World*.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Diener, Ed, Robert A. Emmons, Randy J. Larsen, and Sharon Griffin.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workin, A. G. and Dworkin, R. J. (1999).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87.

- Ferlander, S. (2007). The Importance of Different Forms of Social Capital for Health. *Acta Sociologica*, 50: 115-128.
- Kandel, W. and D. S. Massey. (2002). The Culture of Mexican Migration: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Social Forces*, 80: 981-1004.
- Kymlicka, W. and Jaworsky, B. (2000).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244.
- Neugarten, B. L.. (1968). The awareness of middle age, In B. L.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rtes, A., D. Kyle, and W. W. Eaton. (1992). Mental Illness and Help-Seeking Behavior among Mariel Cuban and Haitian Refugees in South Flori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283-298.
- Portes, A. and J. Sensenbrenner.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1320-1350.
- Ryder, A. G., Alden, L. E. and Paulhus, D. L..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f Bidimensional?: A Head-to-Head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65.
- Safi, Mirna. (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2): 159-176.
- Shin, Doh C., and Dan M. Johnson.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 Research*, 5: 475-492.
- Taylor, Charles.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roper, Harold. (1999). Multiculturalism. in Paul Robert Magocsci(ed).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997-1006.

김 상 민: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학 박사학위(How does collaborative governance work? The experience of collaborative community-building practices in Korea, 2014)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The working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Evaluating collaborative community-building initiatives in Korea”(Urban Studies, 2016), “From protest to collaboration: The evolution of the community movements amid sociopolitic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Urban Studies, Forthcoming), “주민자치와 협력적 마을만들기: 협력적 마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6) 등이 있다(E-mail: sangminkim@krila.re.kr).

이 소 영: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지역문화관광 상품화 과정의 문화매개집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5)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균형발전, 마을 만들기, 지역문화정책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꿈꾸는 상인들의 마을 만들기(2009, R&C), 한국의 장소판촉(2006, 공저, 박영사), 지역진흥 및 자치단체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매뉴얼(2010, 공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이 있다(E-mail: sy2@krila.re.kr)